

韓國人の生活欲求度 및 消費生活水準推定에 관한 研究

A Study of the Measurement of the Level of Need of Living and of the Level of Consumers's Life

昌原大學 家政學科

講 師 盧 英 男

釜山大學校 商科大學 經濟學科

教 授 金 日 坤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Young Nam Roh**

Department of Economics, Pusan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Il Kon Kim**

< 목 차 >

I. 序 論

II. 理論的 背景

III. 研究方法

IV. 結果 및 解釋

V. 結 論

參考資料

< Abstract >

This study was a succession of the paper of Reference 1), and was an attempt to quantify the Level of Need of Living through the relation between D_s (Degree of Sufficiency) and D_i (Degree of Importance). The relation formula was:

$$\text{Level of Need of Living} = D_i \times (5 - D_s) + D_i \times Irl.$$

From the calculated values, some indicators of highest and lowest Level of Need of Living could be cleared and by them the Level of Consumers' Life and Consciousness could be presumed.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Level of Need of Living that the indicators of the equity of income allocations, social mobility, judicial equality, and residential amenity showed was the highest, and that of the life of planned expenditure,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the longevity, and the high level of education was the lowest.

2. The rural residents showed the highest Level of Need on the indicators of medical care, culture and basic living expenditures.

3. The higher the perception of social class and the satisfaction of living was, the lower the Level of Need of Living was.

4. In general, it was presumed that the Level of Consumers' Life was in the term of sufficiency of the second need, which durable electric consume products were purchased under the intended consciousness of consumers to be as like as others.

I. 序 論

이 연구는 '韓國人 生活欲求의 要因構造 및 關連變因의 影響에 관한 研究'¹⁾의 후속논문이다. 앞의 논문에서는 生活欲求를 指標化하고 각 指標에 대한 重要도와 充足도를 측정하여 두 變因의 差異가 클수록 欲求 내지 欲求不滿이 큰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社會經濟的 變因別로 欲求의 差異를 分析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측정된 生活欲求是 대체적인 欲求의 경향은 설명할 수 있으나 너무 단순하고 또 막연하여 人間의 "느낌"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生活上의 欲求나 欲求不滿이 어떠한 對象에 대하여 어느 정도 深化되어 있는가를 數量化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 數量化된 生活欲求, 즉 生活欲求度는 지금까지 重要도와 充足도로 분류되어 分析되어 온 生活欲求를 종합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生活欲求度 算出을 위한 數量化 作業의 한 試圖로서 重要도와 充足도의 비중이 동시에 반영된 하나의 公式를 설정하여 生活欲求度を 정확히 산출하여 분석하고 그에 의해 消費生活水準의 推定을 시도하는데 目的을 두고 있다.

이와같은 生活欲求度는 특히 高度의 經濟成長下에서 생활의 全分野가 급격히 변화하고 또 각 分野별로 균형있는 成長을 기하기 힘들 때 소외되기 쉬운 階層이 일반적으로 갖는 生活意識이나 欲求程度를 파악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試圖로서 하나의 시각으로 어떤 경향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며, 이 시도의 결과는 다른 연구자에 의한 다른 試圖의 결과와 비교될 수 있는 자료로서 보다 가치가 있을 것이다.

II. 理論的 背景

1. 生活欲求度(Level of Need of Living)

生活欲求度는 생활전반에 대한 막연한 欲求 또는

欲求不滿을 수량화한 것으로서 이 수량화에 의해 서 열화가 이루어지므로 生活選好度 또는 政策欲求라고도 한다²⁾. 生活欲求度の 測定은 응답자들에게 직접 欲求水準을 평가하게 하는 것이 간단한 방법이다. 그러나 重要도와 充足도 점수를 比重化하여 조합시키는 여러가지 합리적 방법으로 새로운 점수를 얻을 수 있으며, 이렇게 산출된 수치는 사람들의 生活選好度 (=生活欲求度)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³⁾. 또 이 數値는 欲求의 強度(必要度)로서 生活水準이나 生活의 질 測定時 指標에 加重値를 적용할 경우 그 加重의 基準이 될 수 있다⁴⁾⁵⁾. 문숙재·소연경도 生活의 質 指標의 指數化에는 加重値가 반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한 바 있다⁶⁾. 한편 House⁸⁾는 生活 각 부분의 資源配分費用에 따른 加重値의 적용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配分費用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히 生活欲求度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飽戶 弘⁹⁾은 大都市에는 生活目標나 消費性向面에서 利(이익)가 강하고 即時充足型이 많은 반면 시골(町村)에는 正(똑바름, 옳음)이 강하고 遲延報酬期待型이 많다고 하여 生活欲求도에 있어서의 地域差를 인정하였다. 즉 利가 많고 即時充足型일수록 欲求充足에 조급할 것이며 조급할수록 欲求가 실현되지 못할 경우 좌절도 크고 심하면 精神的인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¹⁰⁾. 丸尾直美등¹¹⁾은 生活의 質에 대한 欲求是 풍족한 社會와 교양있는 階層으로부터 시작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였고, 또 社會階層이란 物的 資源(富), 關係의 資源(勢力·威信), 文化的 資源(知識·教養)이 不平等하게 분배되어 있는 상태이므로¹²⁾ 이 불평등 상태에 대한 主觀的 評價, 즉 社會階層意識은 生活欲求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방법을 슬라이딩 스케일법(Sliding scale)이라 하며 人間의 欲求를 중요시하고 그 欲求度の 크기에 따라 加重하는 것이다. 즉 "一定水準에 비교해서 充足水準이 낮을수록 욕구관점에서 보는 重要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하여 높은 점수를 加重시킨다".

生活滿足度を 個人의 일정한 目標나 期待水準에 대한 成就分^{13,14)}이라 할 때 이는 성취된 어떤 客觀的 狀態에 대한 感情을 의미하며, 生活欲求度는 生活의 어떤 '좋은 狀態'를 목표로 하는 '필요성'에 대한 主觀的 感情을 의미하므로 生活滿足度의 크기는 生活欲求度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Pigou¹⁷⁾도 滿足은 화폐적 크기로 직접 측정될 수는 없으나 欲求의 측정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으며, 어떤 상태가 욕구되지 않는 強度(intensity)는 欲求가 달성된 상태에 대한 滿足感과 비례한다고 하여 生活欲求도와 滿足度間의 逆關係를 시사하였다.

Mccray와 Day¹⁸⁾, 문숙재¹⁹⁾, 이정수²⁰⁾등에 의하면 所得과 學歷도 生活欲求도에 명확한 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지만, 이 두 變因은 社會階層意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²¹⁾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생략하고자 한다²²⁾.

2. 生活欲求度와 消費生活水準

2次大戰 이후 거의 '無의 地境'에서 시작하여 오늘날 福祉先進國임을 자처하게 되기까지의 日本의 消費生活水準 및 消費生活意識의 變化를 추적한 많은 연구 중 尾崎 眞²³⁾, 油谷 遼²⁴⁾, 岩田幸基²⁵⁾, 坂本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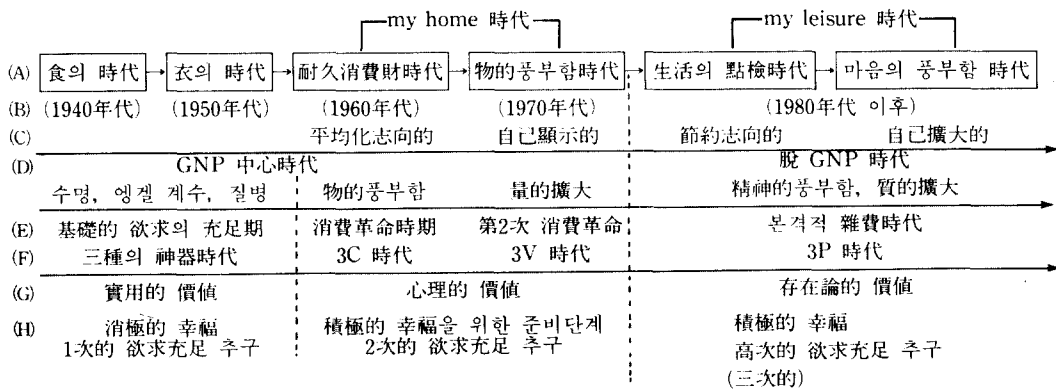
郎²⁶⁾의 것을 종합하면 (圖 1)과 같이 된다.

(C)의 平均化志向의 意識이란 똑같은 物件을 똑같이 所有하고 똑같은 生活을 영위하고자 하는 意識인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는 相對的 貧困感이 확대되는 문제점이 있다. 自己顯示의 意識은 財의 保有를 통해 자신의 社會경제적 지위를 과시하는 自律的인 差別化 意識이며 擬裝化를 통해 相對的 貧困感을 극복한다. 節約志向의 意識은 消費者가 불균형적인 物的 消費生活로부터 새로운 心理的인 均衡的인 社會秩序로 移行하고자 하는 것이며 財의 必要性和 機能性을 강조한다. 自己擴大의 意識은 완벽한 心理次元의 秩序를 志向하는 것이며 마음의 풍부함으로 相對的 貧困感을 극복한다²⁷⁾.

(G)에서 心理的 價値란 商品이 갖고 있는 명성 (prestige) 또는 이미지로서 心理的 要素이며, 存在論的 價値란 商品이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떤 意味가 있는가 하는 것으로서 商品의 價値化의 尺度나 行爲가 매우 個別化된 것으로 볼 수 있다.

(H)에서 積極的인 幸福은 文化的으로 세련된 개인적 취미, 일의 成就, 他人에 대한 봉사등을 포함한다.

生活欲求도가 높은 指標들과 낮은 指標들의 특성이



[圖 1] 消費生活意識과 消費生活水準의 時代的 變化

- (A) 欲求充足의 對象의 변화
- (B) 日本에서의 變化의 時代的 구분
- (C) 消費者의 生活意識의 변화
- (D) 生活欲求도를 측정할 수 있는 指標의 特性변화
- (E) 消費生活水準의 변화
- (F) 消費의 붐을 일으킨 주요 商品의 변화
 - 三種의 神器 = 세탁기, 냉장고, TV (흑백)
 - 3C = color TV, Cooler, Car
 - 3V = Video, Villa, Visa
 - 3P = Pool, Plane, Plae (菜園)
- (G) 生活用品 購入의 價値基準 변화
- (H) 幸福의 段階變化

(D)의 어느 단계에 부합되는 것이 밝혀진다면 우리나라의 消費生活意識과 消費生活水準등의 段階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生活欲求度の 測定方式

日本經濟企劃廳 國民生活局²⁸⁾은 1975년 제 2 회 國民生活欲求調査에서 다음과 같은 欲求得點產出公式를 수립하였다.

$$\text{欲求得點(needs)} = S_a(\text{重要度加重平均}) \times (6 - \text{充足度加重平均})$$

이 公式의 前提는, 重要도와 充足도는 逆關係에 있고 充足도가 높을수록 重要도가 낮아지며 그만큼 欲求가 저하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調査結果가 반드시 이 前提에 부합되지는 않았으므로 5회 조사에서는 새로운 公式를 제안하게 되었다.

$$S_{\text{pref}} = S_a + (S_b - 3)r \times 10$$

S_a = 重要度の 加重平均

S_b = 充足度の 加重平均

r = 重要도와 充足度の 關係係數(間項의 5번주별 度數分布率을 변수로하여 계산)

S_{pref} = 逆好度 得點(欲求得點을 대신한 用語).

3 = 5단계 평점의 중간점.

이 公式의 前提는 ① 逆好度得點은 重要도가 基本이 되어야 하며 選好對象의 優先順位를 좌우한다. ② 充足도와 關係 위에서 重要도를 산정하고 이것을 重要도에 加算 또는 減算하는 式이 고안되어야 한다.

이 式에서 $(S_b - 3)$ 을 설정한 理由는 充足度の 加重平均과 關係係數의 方向을 볼 때, $S_b > 3.00$ 인 경우는 充足도가 重要度の 關係係數는 거의 플러스 값이 되고(33 항목중 27항목), $S_b < 3.00$ 인 경우는 대부분 마이너스값을 보였기 때문이다(27항목중 24항목). 이러한 傾向의 의미는 充足度水準이 3.00이상일 때는

充足도가 상승함에 따라 重要度も 상승하고 3.00이하일 때는 充足도가 낮을수록 重要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S_b - 3) > 0$ 의 경우는 $r > 0$ 이므로 $(S_b - 3) \times r > 0$ 이 되고 選好度得點도 플러스값이 되며,

$(S_b - 3) < 0$ 의 경우는 $r < 0$ 이므로 $(S_b - 3) \times r < 0$ 이 되고 選好度得點도 자연히 플러스값이 된다.

4. 研究 問題

이상의 理論의 背景을 참고로 하여 다음과 같은 研究 概念의 模型(圖 2)과 研究問題를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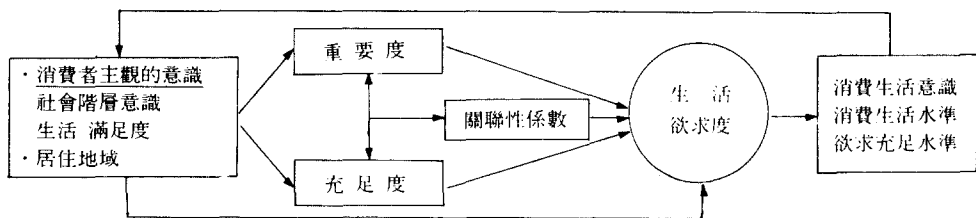
研究問題는 :

- (1) 韓國人의 全般的인 生活欲求度の 傾向은 어떠한가?
- (2) 韓國人의 生活欲求도는 居住地域과 社會階層, 生活滿足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가?
- (3) 生活欲求度の 분석결과로써 추정되는 韓國人의 消費生活意識과 消費生活水準등은 어느정도 인가?

III. 研究方法

본 연구는 先行研究(參考資料 1)에서 사용되었던 調査資料를 그대로 사용한다.

理論의 背景에서 제시된 2가지 公式를 본 연구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資料의 特性이 日本의 그것과 유사해야 한다. 이 類似性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間項의 變주 ① ~ 變주 ⑤ 에 분포된 응답자 度數分布率을 變因으로 하여 계산한 重要도와 充足度間의 關係關係, 즉 5번주 度數分布率에 의한 關係係數를 산출해야 한다. 이 5번주 關係係數(r)은 變因의 수가 적은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으나, 尺度



[圖 2] 研究 概念의 模型.

<表 1> 5범주 도수분포율에 의한 關聯係數의 基準別로 본 指標構造

r 기준	正의 관련계수 지표	5범주 관련 계수	평 균 점		r 기준	負의 관련계수 지표	5범주 관련 계수	평 균 점		계 (%)
			총족도	중요도				총족도	중요도	
.900 이상	1) 스포츠활동 참여	.909	2.969	3.234	-.900 이상					
	62) 선택적 지출	.924	3.253	3.807						
.899 ↓ .700	3) 육어류 섭취	.865	3.465	3.830	-.899 ↓ -.700					6 (9.2%)
	20) 음식비 지출	.783	3.042	3.480		58) 소득분배의 공평	-.770	2.429	4.673	
	30) 의복수준	.738	3.304	3.694						
.699 ↓ .400	13) 승용차 보급	.547	2.852	3.507	-.699 ↓ -.400	57) 이동도(mobility)	-.672	2.534	4.532	16 (24.6%)
	53) 영유아사망율	.465	3.637	4.168		46) 주거생활의 쾌적함	-.640	2.941	4.708	
	29) 가정행사비용	.430	3.052	3.790		38) 법적인 공평함	-.624	2.901	4.780	
	52) 가족구성문제	.413	5.237	3.931		61) 주택코스트	-.573	2.736	4.007	
						31) 주택공급및 투자	-.553	2.823	4.565	
						42) 정신적 건강	-.478	2.881	4.475	
						60) 소비수준	-.470	2.835	4.382	
						23) 근로생활수준	-.460	2.907	4.482	
						56) 사회복지, 보장제도의 확립	-.447	2.681	4.551	
						4) 의료시설, 의료인력 수준	-.437	3.125	4.667	
						8) 고용, 실업문제	-.432	3.030	4.406	
						36) 교육환경	-.416	3.120	4.682	
	.399 ↓ .200	39) 여가비용 지출	.385	2.722		3.324	-.399 ↓ -.200	44) 물가억제	-.389	
27) 부모자녀관계		.277	3.664	4.771	22) 생활과 표현의 자유	-.385		3.152	4.446	
49) 정보화 수준		.277	3.233	4.178	5) 범죄 및 사고로부터의 안전	-.379		3.186	4.762	
24) 주거광열비 지출		.272	3.124	3.957	12) 문화예술활동	-.350		2.918	4.251	
6) 사회활동 참여		.250	2.763	3.663	40) 과학기술의 발전	-.332		3.128	4.577	
17) 인구문제		.247	2.732	3.116	41) 주택소유유형	-.327		2.960	4.288	
11) 교통통신의 발달		.216	3.681	4.565	64) 의료비 지출	-.325		3.977	4.360	
51) 의료보험 가입		.215	3.249	4.507	35) 재해로부터의 안전	-.320		2.212	4.656	
10) 예산생활		.203	3.991	4.781	26) 자기개발활동	-.319		3.885	4.223	
					16) 저축, 자산 증가	-.319		3.044	4.223	
					59) 여가활동 참여 다양화	-.310		2.820	4.169	
					47) 부채억제	-.306		2.765	4.528	
					63) 주변자연환경	-.304		3.825	4.526	
					34) 보건위생적 환경	-.280		3.201	4.669	
					48) 육체적 건강유지	-.256		3.402	4.798	
					33) 국내외 여행	-.254		2.393	3.558	
					43) 빈곤층(저소득층) 감소	-.241		2.881	4.475	
				32) 기초교육의 충실	-.235	3.362	4.726			
				37) 상하수도 보급	-.227	3.238	4.557			
				25) 병원이용 정도	-.218	3.339	4.721			
				65) 주택의 넓이(거주 수준)	-.209	2.887	4.137			

.199	18) 주택의 기본시설	.174	3.309	4.324	-.199	15) 합리적 상품구매	-.186	2.994	4.300	(20.0%)
}	55) 칼로리 섭취	.144	3.324	4.292	}	9) 부부의 결혼생활 상태	-.180	3.085	4.303	
	61) 교육수준 고도화	.139	3.437	4.464		54) 여가시간 증대	-.124	2.882	3.970	
	69) 신문·서적·잡지의 구독	.122	3.220	4.194		45) 효율적시간 사용	-.117	3.105	4.298	
.000	21) 이웃과의 친근	.120	3.137	4.109	.000	2) 소득의 증가	-.115	3.109	4.285	
	50) 주거지역 근접 편리성	.074	3.224	4.390		7) 교육비 지출	-.074	3.309	4.413	
							28) 장수하는 것	-.056	3.420	
계 (%)	24 (36.9%)				계 (%)	41 (63.1%)				65 (100%)

의 信賴性이나 標本의 크기가 인정된다면 우선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불가결하다²⁹⁾. 이 關聯係數는 平均點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重要도와 充足度間의 전체적인 分布類型에 있어서의 關聯性을 보다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表 1〉에는 본 연구 자료의 關聯係數가 充足도와 重要도의 平均點과 함께 제시되어 있다. 이 表를 근거로 하여 앞에 제시된 公式중 두번째 公式의 主要要素인 充足도의 平均(S_b)과 關聯係數의 方向을 살펴보면,

① $S_b > 3.00$ 인 경우 (39개)중 r 값이 플러스인 指標는 19개 뿐이고,

② $S_b < 3.00$ 인 경우 (26개)중 r 값이 마이너스인 指標는 21개이다.

②의 경우는 日本의 경우와 매우 일치되는 경향이 있지만 ①의 경우는 상당한 差異가 있다. 즉 充足도가 3.00이상일 때 充足도가 상승함에 따라 重要도와 함께 상승한다는 경향이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資料의 特性에 적합한 다른 公式을 수립할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먼저 日本經濟企劃廳의 두가지 公式의 基本前提를 참고로 하여 다음과 같은 欲求度公式의 基準를 세웠다.

① 重要度(A)는 높는데 充足도가 낮은 指標(B)일수록 欲求가 강할 것이므로 높은 欲求度點數를 얻어야 한다.

② 重要도와 充足도의 關聯性(C)이 반영되어야 한다.

③ 生活欲求度點數의 크기는 重要도의 크기(A)에 의해 좌우되어야 한다. 즉 重要도가 公式의 基本이 된다.

이상의 基準에서 (A)(B)(C)는 公式의 主要構成要素가 되며 다음 方式으로 그 값을 얻는다.

(A) 重要度點數 : 生活欲求調查에서 나타난 重要도의 平均點(D_s).

(B) 未充足度點數 : 充足度最高點數에서 充足度 平均點數를 뺀 것 ($5 - D_s$). 어떤 指標가 未充足되었을 때 그만큼 重要도가 커질 것이므로 D_s 에 곱해준다.

(C) 關聯強度點數 : 5범주 關聯係數 r 의 절대치를 重要度點數에 곱하여 응답자가 중요하다고 느낀 정도에 비례하여 充足도가 확대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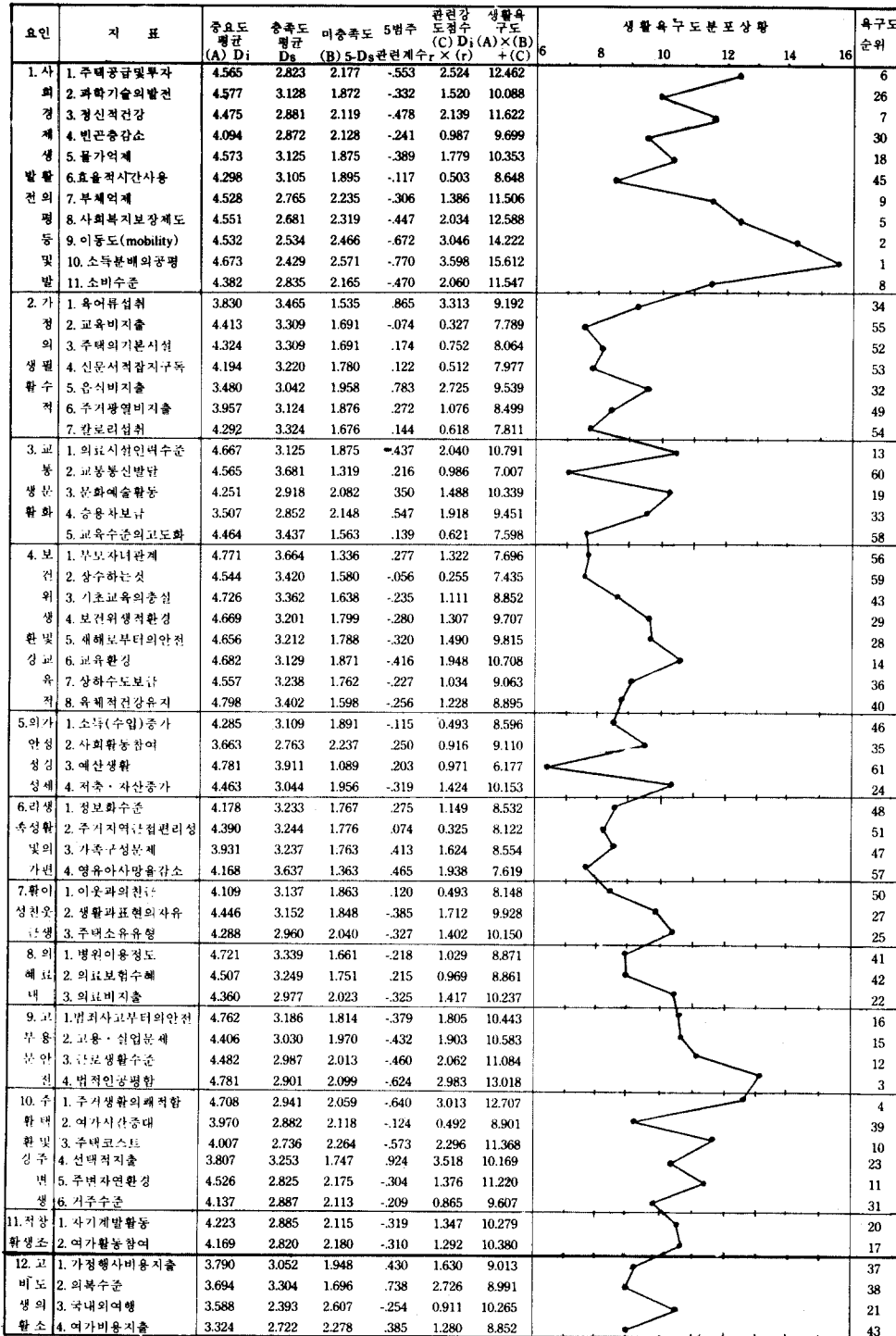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假定위에서 다음과 같은 公式을 세울 수 있다.

$$\begin{aligned} & \text{生活欲求度 (Level of Need of Living)} \\ & = \text{重要度點數} \times \text{未充足點數} + \text{關聯強度點數} \\ & = D_s \times (5 - D_s) + D_s \times |r| \end{aligned}$$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日本經濟企劃廳의 첫번째 公式을 주로하고 두번째 公式의 關聯係數를 반영하는 형식으로 조합된다. 또 關聯係數의 절대치를 사용한 것은 係數의 -값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重要도가 높을수록 欲求度點數가 감소되어 公式設定의 基準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要因分析에서 가장 비중이 크게 나타난 要因 1의 指標들의 欲求도가 오히려 가장 낮아지게 되어 현실적으로 가장 큰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소득분배의 공평과 같은 욕구문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公式에 의해서는 重要度點數가 클수록, 充足度點數가 낮을수록, 關聯係數 r 의 값이 클수록 높은 生活欲求度點數를 얻을 수 있다. r 값이 커지기 위해서는 重要도와 充足도의 度數分布率이 같은 方向으로

N = 1084



[圖 3] 全体的인 生活欲求度 產出.

커진다든지 또는 逆方向으로 커져야 하며, 度數分布狀況이 유사해야 한다*.

IV. 結果 및 解釋

1. 全體의인 生活欲求度의 경향

앞에서 설명한 公式에 의거하여 산출한 生活欲求度 點數가 각 要因에 적재된 指標別로 [圖 3]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欲求度가 가장 높은 指標는 所得分配의 公平이고 그 다음이 移動度(2위), 法的인 公平함(3위) 등 社會的, 經濟的 平等向題에 관한 것들로서 Galbraith의 “社會的 不均衡(social unbalance)”이 우리나라에서도 심화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社會的 不均衡은 個人的인 財와 서 ervices의 消費水準이 絶對的 水準으로는 풍부하게 되어도 階層間 分配가 현저히 差異나는 현상으로서, 이 差異를 당하는 사람들이 疏外階層이다. Dean³⁰⁾은 이 疏外된 階層의 特徵을 無力(powerlessness), 無規範(normlessness), 社會的 孤立(social isolation)이라고 하였다.

欲求度가 가장 높은 앞의 세 指標는 重要度點數는 높고 充足度는 낮으며 關聯係數 r값이 $\pm .60$ 이상으로 매우 크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특히 所得分配의 公平指標는 先行研究(參考資料 1.)의 重要度順位에서는 10위에 그쳤으나 公式化에 의한 欲求度算出에서는 1위로 올랐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의 所得不平等이 產業部門間보다는 個別部門內部에서, 學歷相互間보다는 個別學歷內部에서, 職業相互間보다는 個別職業內部에서 심화된 격차때문에 不平等度가 훨씬 심각하게 된 현상³¹⁾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公정한 分配의 3原則인 ① 貢獻의 原則(equity), ② 平等的 原則(equality), ③ 必要의 原則(need)³²⁾ 중에서 특히 平等的 原則에 위배되는 문제이다.

欲求度 4위의 指標는 住居生活의 快適함이다. 住居生活水準은 居住하고 있는 住宅(밀도, 설비 등 個人的部門)만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環境과 環境의 質

(임지, 주위환경 등 公共的 部門)이 함께 평가되어야 하는데³³⁾,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經濟發展에 따른 마이너스效果(結生生産物), 즉 環境公害 및 기타 都市問題 등에 의해 저하된 住居生活의 快適度가 반영되었다고 생각한다.

5위의 欲求度를 보인 社會福祉·保障制度의 確立은 生活問題에의 社會的 對應이다.

특히 최근에는 일부 계층의 貧困化가 심화되어 社會福祉·社會事業의 社會的 重要性이 그 개념의 形成期에 비해 훨씬 커지게 되었는데³⁴⁾ 그러한 社會的 現象이 잘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섯번 째로 높은 欲求度를 보인 住宅供給 및 投資指標는 해마다 악화되지만 하는 우리나라의 住宅事情을 그대로 말해 주고 있다. 7위의 높은 欲求度를 보인 精神的健康指標는 열망하던 社會的 地位나 認定을 획득하지 못할 때의 좌절감, 同質的 集團內部에서의 經濟的 不平等, 疏外階層의 社會的 孤立 등에 의한 地位欲求, 比較欲求, 參與欲求와 關聯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 指標의 重要度는 26위에 불과했으나 欲求度 순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消費水準, 負債抑制, 住宅코스트, 周邊自然環境指標가 8위에서 11위까지의 순위를 나타내었는데, 上位의 순위에 속하는 指標들(11개)은 대체로 社會的, 經濟的 平等에 관한 것(7개)과 住居環境에 관련된 것(4개)들이다.

欲求度順位가 가장 낮은 指標들은 換算生活(61위), 交通通信의 發達(60위), 長壽하는 것(59위), 教育水準의 高度化(58위) 등인데, 重要도와 充足도는 매우 높고 關聯係數는 낮아서 欲求度점수가 낮아졌다. 그다음 순위는 嬰乳兒死亡率減少(57위), 父母子女關係(56위), 教育費支出(55위), 칼로리섭취(54위)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 欲求度가 낮은 指標들은 家族, 交通, 壽命, 教育 등 우리 생활에서 어느 정도 충족된 상태에 있다고 생각되는 個人生活部門과 관련된 특징이 있다.

全般的인 欲求度의 경향을 종합하면 ① 이미 충족되어 있거나 個人 또는 家族의 힘만으로 해결이 가능한 部門(要因 2, 5, 6 등)은 대체로 欲求度가 낮은 편이고, ② 消費의 高度化, 生活의 高級化나 多樣化 등 장애기대적 生活部門(要因 11, 12)이 중간적인 欲求度水準을 보이며, ③ 國家的·社會的 힘이 아니면 해결

* 이러한 특징 때문에, 평균점에 의한 pearson r, Gamma, sommer's D, Cramer's V, 유관계수 C 등의 상관관계등도 사용가능 하지만 度數分布率에 의한 關聯係數를 채택하였다.

할 수 없는 分配·公平, 住居·環境·雇傭·安全部門(要因, 1, 9, 10)에 대한 欲求度는 뚜렷하게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경향은 醫療·保健과 收入, 消費生活에 관한 選好度가 가장 높고 生活環境, 公正, 生活保障, 家族에 관한 選好度는 중간이며, 餘暇와 勤勞生活, 個人的 安全과 保護(사고, 오염, 식품공해 등)에 관한 選好度는 가장 낮게 나타난 日本의 경향³⁵⁾과의 차이가 있다.

2. 居住地域, 社會階層意識, 生活滿足度에 따른 生活欲求度の 差異

1) 居住地域에 따른 差異

(圖 4)에서 農村과 都市居住者들의 生活欲求도가 指標別로 제시되어 있고 <表 2>에는 要因別로 t검증이 되어 있다. 農村居住者들의 欲求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경향을 보인 것은 醫療施設·人力水準, 住宅의 基本施設, 乘用車普及, 病院利用程度, 文化技術活動, 신문·서적·잡지購讀, 住居光熱費支出등 醫療, 文化, 基本的 生活部門으로 要因 2(5%수준)와 要因 3(1%수준)에 집중되어 있다.

都市居住者들의 欲求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인 指標는 住居生活의 快適함, 移動度, 所得分配의 公平, 法的인 公平함, 教育環境, 住宅所有類型, 住宅코스트, 周邊自然環境등 주로 社會·經濟的 平等과 雇傭·安全 및 住居·環境部門과 관련된 것들로서 주로 要因 1, 要因 9(5%수준), 要因 10에 포함된 것이 많으며 여가, 취미활동에 관계된 要因 11(1%수준)에

서도 農村居住者들보다 欲求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朱鶴中³⁶⁾은 20여년간의 高度成長으로 營養, 醫療, 教育, 住居生活등의 基本的 生活要件이 絶對的 概念으로 부터 相對的 概念으로 바뀌어 規定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農村과 都市를 비교해 본 결과 農村은 都市에 비해 絶對的 概念의 生活要件에 대한 欲求도가 더 높고 都市는 相對的 概念의 生活要件을 욕구하는 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 社會階層意識*에 따른 差異

(圖 4)에는 社會階層意識에 따른 生活欲求度の 差異도 함께 제시되어 있다. 全指標에 대해 下流階層으로 갈수록 生活欲求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階層間 差異가 심하게 나타난 것(5.0이상 差異)은 教育費支出, 所得增加, 貯蓄·資產增加, 雇傭·失業問題, 家庭行事費用支出에 관한 經濟關係指標들로서, 所得이 社會階層意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要因임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그리고 이들 指標外에 交通文化生活과 이웃생활의 親近性을 제외한 모든 要因들이 유의한 수준(5%이하)에서 階層間 差異를 보이고 있다.

全階層이 社會·經濟的, 平等, 住居·環境, 雇

*이 社會階層意識은 응답자들의 ① 극빈층, ② 하류층, ③ 중류층, ④ 상류층, ⑤ 최상류층 중에서 자신들의 현재 생활수준에 해당되는 것을 고르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69.5%가 자신들의 中流에 속한다고 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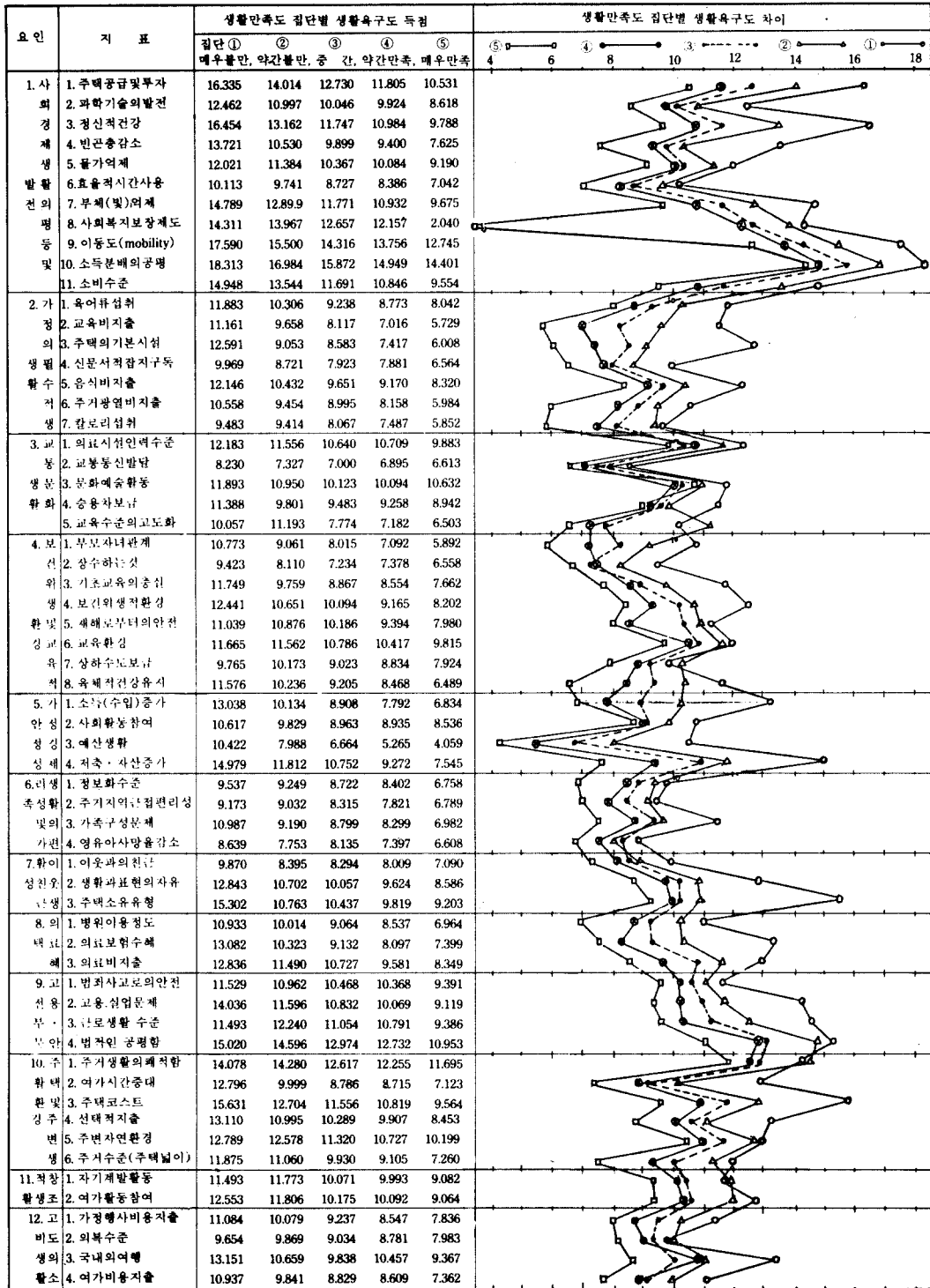
<表 2> 居住地域, 社會階層意識, 生活滿足度에 따른 要因別生活欲求度 差異 檢證

要因 變因		1	2	3	4	5	6	7	8	9	10	11	12
居住 地域	df	20	12	8	14	6	6	4	4	6	10	12	6
	t	-1.005	2.404*	2.566**	-.408	-.074	.188	-1.179	.920	-1.988*	-.730	-8.308***	-.465
社會階 層意識	df ①	2	2	2	2	2	2	2	2	2	2	2	2
	df ②	30	18	12	21	9	9	6	6	9	15	3	9
	F	10.810***	32.245***	2.030	12.399***	8.178**	15.872***	3.630	10.116**	11.064***	9.380**	21.362***	8.822**
生活 滿足度	df ①	4	4	4	4	4	4	4	4	4	4	4	4
	df ②	50	30	20	35	15	15	10	10	15	25	5	15
	F	8.375***	23.301***	3.051	11.433***	6.174***	15.908***	7.681**	18.438***	5.533**	7.714**	27.671***	6.759**

*p<.05 **p<.01 ***p<.001

①= 집단간, ②= 집단내

이 검정은 각 要因에 적재된 指標에 대한 각 집단별 욕구도의 평균점수를 변수로하여 산출한 것임.



위 그림에서:

증감=불만도 만족도 아니다.

[圖 5] 生活滿足度에 따른 生活欲求度.

備·安全部門에 대하여 높은 欲求度 경향을 나타낸 결과
과가 이미 언급되었는데, 住居·環境部門에 있어서는
下流階層이 住居의 便利한 施設이나 快適함보다는
住宅을 소유하는데 필요한 量的인 費用問題에 높은
欲求度 경향을 나타낸 반면, 中流와 上流層은 快適함
과 便利性 및 周邊環境等 質的 問題에 대해 더 높은
欲求度 경향을 보였다.

또 中流層은 精神的 生活部門과 社會福祉·保障制
度에 대한 欲求도가 높은 경향이고, 上流層은 특히
教育環境, 文化藝術, 醫療水準에 관한 높은 欲求도
경향을 보여 階層意識이 높을수록 生活的 質的 充足
을 志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全体的으로 말해서 國家·社會的인 힘이 필요한 社
會·經濟的 平等, 健康 및 住宅·周邊生活環境部門
에 대해서는 全階層이 높은 欲求도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二, 三次的 欲求와 관련된 交通, 文化生活
및 生活的 便利性部門은 階層意識이 높을수록, 家族
의 基本的 生活과 家庭經濟 安定性 및 醫療惠澤部門

등 주로 一次的 欲求와 관련된 部門은 階層意識이 낮
을수록 높은 欲求도 경향을 보였다.

3) 生活滿足度**에 따른 差異

欲求가 充足되어진 상태, 즉 滿足하고 있는 意識狀
態는 福祉의 基準이 되므로³⁷⁾, 滿足도가 높을수록 生
活欲求도는 낮고 福祉에 근접하게 될 것이다.

[圖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生活滿足도 집단별로
生活欲求도는 確切한 差異가 있고 불만이 많은 집단
일수록 欲求도點數는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 差異
는 主要因이 5%수준 이하에서 유의적이다.

「매우 불만」 집단이 15.0이상의 높은 欲求도를 나
타낸 指標는 健康, 社會·經濟的 平等과 住宅部門에

**이 生活滿足도는 현재 生活에 대한 만족수준을 ① 매
우 불만이다. ② 약간 불만이다. ③ 불만도 만족도
아니다. ④ 약간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하더의 범주
에서 고르도록하여 측정하였다. ①과 ②의 분포율은
19.3%, ③의 분포율은 31.5%, ④와 ⑤의 분포율은
49.2%로 나타났다.

<表 3> 집단별로 본 要因別 生活欲求도의 順位

요 인	전 체 (1084)	거주지역별		계층의 식별			생활만족도별				
		농촌 (470)	도시 (614)	하류 (272)	중류 (753)	상류 (59)	매우불만 (25)	약간불만 (183)	중 간 (341)	약간만족 (438)	매우만족 (96)
1 社會經濟生活의 平等發展	1	1	1	1	1	1	1	1	1	1	2
2 家庭의 必須的 生活	11	8	12	7	12	12	9	11	11	11	12
3 交通文化生活	8	6	9	11	9	5	11	6	9	7	5
4 保健衛生 및 教育的 環境	9	9	7	10	8	10	10	8	8	9	9
5 家庭經濟的 安定性	10	11	10	8	11	11	6	10	10	12	11
6 生活的 便利性 및 家族	12	12	11	12	10	9	12	12	12	10	10
7 이웃 生活의 親近性	5	10	5	9	5	6	4	9	6	5	6
8 醫療惠澤	6	5	8	5	7	8	5	5	5	8	8
9 雇傭, 安全部門	2	2	2	2	2	3	2	2	2	2	1
10 住宅 및 周邊生活環境	3	3	3	3	3	2	3	3	3	3	4
11 創造的 生活	4	4	4	4	4	4	7	4	4	4	3
12 高度의 消費生活	7	7	6	6	7	7	8	7	7	6	7

· 생활 만족도「중간」=「불만도 만족도 아니다」에 응답한 집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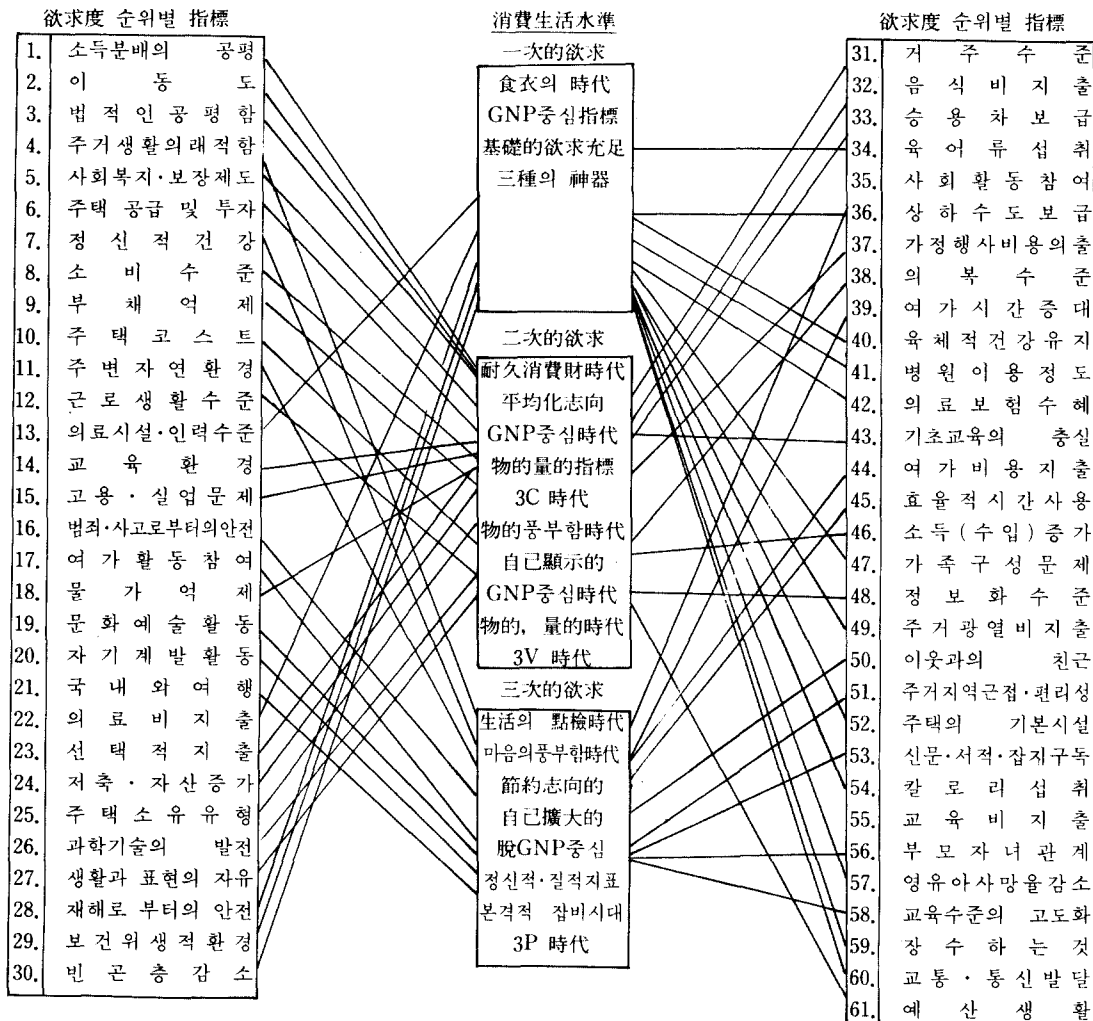
관한 것들이다. 특히 所得分配의 平等과 移動度에 관한 欲求度가 높는데, 이는 所得의 절대수준은 개선되어도 分配의 불균형이 두드러지고 이것이 의식되어지면 사람들의 生活滿足度가 깨어져 버리기 때문이다³⁹⁾.

「매우 불만」집단은 下流層과 같이 住宅을 마련하기 위한 住宅費用部門에 대한 欲求度가 특히 높은 경향이 있고, 「매우 만족」집단은 社會福祉·保障制度, 신문·서적·잡지購讀 및 家庭의 基本의 生活(要因 2)에 대한 欲求度가 특히 낮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별로 他集團의 欲求度水準을 넘어 특별히 강한 欲求度의 경향을 보인 것은 「매우 만족」집단의 文化藝術活動과, 「약간불만」집단의 教育水準의 高度

化, 上下水道普及, 住居生活의 快適함, 自己啓發活動, 衣服水準等 教育과 生活의 高度化 및 安樂에 관련된 것들이다.

家庭의 必須의 生活(要因 2)과 家庭經濟의 安定性(要因 5)에 대해 「매우만족」집단과 「약간 만족」집단은 특히 낮은 欲求度를 나타낸 반면 「매우 불만」집단은 특히 높은 欲求度경향을 보여 이들 基本的인 所得·消費問題가 生活滿足度 形成에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매우 불만」집단이 이웃생활 親近性(要因 7)에 대해 특별히 높은 欲求度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 두가지 사실로써 低所得·低消費水準 → 生活에 대한 不滿高調 → 社會的 孤立化의 관계가 성립되고 이는 Dean³⁸⁾의 소외계층의 특징에 매우 부



[圖 6] 消費生活意識 및 消費生活水準階別로 분류된 生活欲求指標.

<表 4> 坂本=郎의 積極的인 幸福에 이르는 9가지 客体的 條件.

행복의 단계	욕망충족단계	행복의 객체적인 조건	측정지표
I. 소극적 행복 · 生存(동물적)에 관련 된 조건 · 눈에 보이는 不幸의 조건	제 1 차적 욕망충족	1. 자신과 가족이 죽지않고 살아가는 것 2. 병에 걸리지 않는 것 3. 굶주림으로 고생하지 않는 것	재해, 평균수명 영유아사망률 engel계수
II. 적극적 행복을 위한 준비 단계 · 눈에 보이지 않는 不 幸의 조건	제 2 차적 욕망충족	4. 안정된 직업, 매년 수입이 증가하는 것 5. 근대문명의 혜택을 입는 것 6. 정치적으로 압제가 없고 자유로운 것	1차산업 인구비율 문맹 율 도시인구비율 투표율, 유권자 인구비율
III. 적극적 행복 · 삶의 보람의 大衆化	제 3 차적 욕망 충족	7. 문화적 세련도가 높은 취미, 여가생 활 8. 일을 성취하는 것 9. 타인을 위해 도움을 주고 봉사하는 것	제조업주간 노동시간 잡비비중 동일학령인구중 고등교 육 인구비중 사회적 명성이 높은 직 업의 비중(취업인구중)

합된다고 할 수 있겠다.

<表 3>에는 각 집단의 要因別 生活欲求度 順位가 坂本二郎의 積極的 幸福에 이르는 이 9가지 客体的 제시되어 있다. 全體順位와 가장 유사한 順位構造를 보인 집단은 都市居住者, 中流階層, 生活滿足度의 中間集團으로서 이들의 生活意識이 전체 國民生活意識의 중추임을 알 수 있다.

3. 消費生活意識과 消費生活水準의 推定

研究問題 1 과 2를 분석한 결과 交通, 家族, 壽命, 教育, 營養등에 대한 전체적인 欲求度水準은 매우 낮고, 所得分配의 公平, 階層間 移動度, 法的인 公平함, 社會福祉·保障制度, 消費水準등 相對的 比較心理을 반영하는 社會·經濟的 平等에 관련된 欲求度는 가장 높으므로 우리나라의 平均的인 消費生活意識이나 消費生活水準은 <圖 1>에서의 基礎的 欲求充足期를 지나 二次的 欲求充足期의 前期의 平均化志向時期, 즉 消費革命時期에 들어서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각 指標을 欲求位階別로 관련시켜 보았다. [圖 6]. 이 관련화는 坂本二郎의 積極적 행복에 이르는 9가지 客체적 條件 <表 4>과 消費生活意識과 消費生活水準의 時代的 變化 [圖 1]을 기준으로 하였다. 또 관련화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무선표집한 20명의 대학생의 의견을 집약하여 참고하였다.

欲求度順位가 上位에 속한 指標들은 대부분 二次的

欲求充足期, 특히 前期에 집중되어 있으며, 下位에 속한 指標들은 대부분 一次的 欲求充足期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平均的으로 또는 全體的으로 본 韓國人의 消費生活意識은 남들과 똑같은 물건을 똑같이 所有하고 똑같은 消費生活을 하고자 하는 平均化志向的 段階에 있으며, 컬러TV, 쿨러, 자가용승용차등을 비롯한 耐久消費財의 消費가 붐을 이루고 있는 消費生活水準에 있으며 相對的인 比較心理에서 購買를 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 段階에서는 社會的인 欲求, 즉 社會的 均衡, 安全과 保障, 公正, 參與의 欲求등이 深化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우리의 消費生活意識 및 消費生活水準은 日本의 1960年代 水準과 유사하다.

그러나 일부 農村居住者들은 絕對的 概念의 生活要件에 대한 欲求도가 높으므로 아직 一次的 欲求充足期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消費의 高度化나 生活의 高級化에 대한 欲求도 상당히 노출되었으므로 일부 消費者들은 自己顯示의 欲求充足을 위한 video, villa, visa의 消費水準에 있으며, 住居生活에 있어서는 快適함, 便利性 및 周邊環境에 대한 높은 欲求도를 보여 精神的, 質的 擴大의 三次的 欲求充足을 추구하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을 것 같다.

V. 結 論

본 연구는 公式化를 통해 生活欲求도를 數量化하여 韓國人の 欲求가 어떤 部門에 대하여 어느정도 深化되어 있는 가를 파악하고, 居住地域과 社會階層意識 및 生活滿足도가 數量化된 生活欲求도에 미치는 영향을 分析하고자 하였다. 數量化의 公式는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生活欲求度} &= \text{重要度點數} \times \text{未充足度點數} + \text{關聯強度點數} \\ &= D_i \times (5 - D_{is}) + D_i \times |r| \end{aligned}$$

重要도와 充足度 點數는, 先行研究(參考資料 1)에서 전국적으로 추출된 1084명의 調查對象자들이 65개의 生活欲求指標에 대하여 1점부터 5점까지의 5단계로 응답한 것을 이용하였다.

중요한 研究結果는 다음과 같다.

1. 生活欲求도가 가장 높은 指標는 所得分配의 公平(1위), 移動度(2위), 法的인 公平함(3위), 住居生活의 快適함(4위), 社會福祉·保障制度(5위)이고 가장 낮은 指標는 豫算生活(61위), 交通通信의 發達(6위), 長壽하는것(51위), 教育水準의 高度化(58위), 嬰乳兒死亡率減少(57위)이다.

2. 全體的인 生活欲求도의 경향은 이미 充足되어 있거나 個人的 또는 家庭的 힘으로 해결가능한 家族, 交通, 壽命, 教育, 營養에 관한 部門이 가장 낮고, 消費의 高度化나 生活의 高級化, 多樣化에 관한 部門이 중간이며, 國家的 또는 社會的 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分配·公平, 住宅·環境, 雇傭·安全部門에 관한 것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農村住居者들은 醫療, 文化, 基本的 生活部門의 絕對的 要件에 대하여, 都市住居者들은 社會·經濟의 平等, 雇傭·安全, 住居·環境部門의 相對的·要件에 대하여 상대집단 보다 높은 欲求도를 나타내었다.

4. 社會階層意識이 높을수록 二, 三次的 欲求와 관련된 交通, 文化生活 및 生活의 便利性部門에 대하여, 社會階層意識이 낮을수록 家庭的 基本的 生活과 家庭經濟 安定性 및 醫療惠澤등 一次的 欲求와 관련된 部門에 대하여 높은 欲求도를 나타내었다.

5. 生活滿足도가 낮을수록 전반적인 生活欲求도가

높게 나타났다. 집단별 差異가 특히 크게 나타난 부문은 住宅費用, 社會福祉·保障制度, 家庭的 基本的 生活과 家庭經濟 安定性등이었다.

6. 平均的으로 우리나라는 二次的 欲求充足期的 前期인 耐久消費財時代에 있으며 平均化志向의 消費生活意識으로 相對的 比較心理에서 購買를 하고 物的 풍부함과 量的擴大志向의 消費生活水準에 있는 것으로 推定된다.

본 연구의 분석기준인 生活欲求度 算出公式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하나의 試圖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 公式에 의거하여 대체적인 生活欲求度 및 消費生活意識과 水準은 현실성있게 파악되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개인의 欲求調整과 정부의 福祉政策에 有用한 資料가 될 것으로 믿는다. 다른 연구자들에 의한 다른 公式化(生活欲求도의 數量化)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보다 합리적으로 資料의 特性 差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식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欲求度測定이 時系列的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이 主觀的 意識指標에 대한 客觀的 資料分析이 이루어진다면 본 연구의 効用性이 훨씬 증대될 것이다⁴⁰⁾.

參 考 資 料

- 1) 盧英男, 韓國人 生活欲求의 要因構造 및 關聯變因의 影響에 관한 研究, 대한가정학회지, 本號.
- 2) 日本經濟企劃廳國民生活局, 國民生活選好度調査, 1985, p. 169.
- 3) Ibid., pp. 203-206.
- 4) 三重野 卓, 福祉と社會計劃と理論, 東京, 白桃書店, 1984, p. 79.
- 5) 村田詔治·丸屬直美·井觀利明, 福祉志向の論理, 東京, 有斐客, 1976, p. 22.
- 6) Ibid. p. 123.
- 7) 문숙재, 소연경, 家庭生活의 質 測定을 위한 예비 연구, 한국가정 관리학회지, 창간호, 1983, pp. 43-53.
- 8) Peter W. House, How do we know where we are going? Presented to a seminar on Multiple Criteria Decision Making at the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1972, pp 26-27. Recited from: 金永燮, 社會開發計劃論, 서울 法文社, 1985, pp. 45-47.
- 9) 鮑戶 弘, 消費文化論, 東京, 中央經濟社, 1985,

- pp. 87-88.
10. 岩田幸基, 消費構造の知識, 東京, 日本經濟新聞社, 1976, p. 43.
 11. 村田昭治・丸尾直美・井觀利明, *Op. Cit.*, p. 1.
 12. 富永健一, 社會學原理, 東京, 中央公論社, 1986, p. 271.
 13. W.R. Burr, Satisfaction with Various Aspects of Marriage over the Life Cyc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32, 1970, p. 29.
 14. S. McCall,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2. 1975, pp. 229-248.
 15. A Mitchell. U.J. Logothetti, and R.E. Kantor, An Approach to Measuring The Quality, 1973, 荻原勝, 歐美先進社會における, ゲオリケイ・オブ・ライフの研究, 國民生活センター, 國民生活研究, 第17卷 第4號, 1978, 3., p. 2.
 16. Ben-Chieh Liu, Economic and Non-Economic Quality of Life: Empirical Indicator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Large Standard Metropolitan Areas. *The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Vol. 36. No. 3, Aug., 1977, pp. 225-240.
 17. A.C. Pigou, *The Economics of Welfare*. 4th ed. Macmilan E Co. Ltd. New York. St. Martin's Press, 1960, pp. 23-24.
 18. Jacquelyn W. McCray and Savannah S. Day, Housing values, Aspiration, and satisfactions as Indicators of Housing Need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HERJ)* Vol. 5, No. 4, June. 1983, pp. 244-255.
 19. 문숙재, 정은숙, 都市家庭의 生活의 質 測定을 위한 예비 연구, *Op. Cit.*, pp. 149-167.
 - 20) 이정수, 家事勞動時間과 生活의 質과의 인식과의 관계. 이화여대, 생활과학 연구소, 생활과학 연구 보고서, 1985, pp. 61-115.
 - 21) 柏尾昌哉, 生活の 經濟, 一現代生活様式を求めて一, 東京, 實教出版, 1982, pp. 19-23.
 - 22) 이 변인들에 의한 生活欲求度の 差異는 盧永男, 韓國人의 生活欲求와 生活水準의 綜合的 分析,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2, pp. 155-163, 참조바람.
 - 23) 尾奇 眞, 消費科學試論, 京都, ナカニシヤ出版, 1986, p81.
 - 24) 油谷 薄, 20世紀末 消費生活, 東京, 弓立社, 1985, pp. 20-21.
 - 25) 岩田幸基, 消費構造の知識, *Op. cit.*, pp. 162-163.
 - 26) 坂本二郎, 幸福の經濟學, 東京, 潮出版社, 1968, p. 154-158.
 - 27) 尾崎 眞, *Op. Cit.*, pp. 75~87.
 - 28) 日本經濟企劃廳國民生活局, *Op. Cit.*, pp. 203-206.
 - 29) *Ibid.*, p. 178.
 - 30) Dwight G. Dean, Alienation: Its Meaning and Measure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27. 1961, pp. 753-758.
 - 31) 朱鶴中,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上),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79, p. 306.
 - 32) 望月 嵩・本村汎共編, 現代家族の福祉, 東京, 培風館, 1986, pp. 241-242.
 - 33) 丸尾直美・熊谷彰矩 編著, 質の經濟學—アメニテイ社會の實現—, 東京, 向文館, 1981, p. 195.
 - 34) 一番ヶ瀬康子, 眞田是 編, 社會福祉論, 東京, 有斐閣, 1986, p. 13.
 - 35) 日本經濟企劃廳國民生活局, *Op. Cit.*, p. 215.
 - 36) 朱鶴中,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下),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82, pp. 272-273.
 - 37) A.C. Pigou, *The Economic of Welfare*, *Op. Cit.*, pp. 23-24.
 - 38) Dwilght G. Dean, *Op. Cit.*, pp. 753-758.
 - 39) 村田昭治・丸美直美・井觀利明編, *Op. Cit.*, pp. 2-6.
 - 40) 盧英男, 韓國人의 生活欲求와 生活水準의 綜合的 分析 1988, pp. 49~58 및 pp. 175~210에서 객관적 자료에 生活欲求度點數를 加重하여 生活水準을 분석하였음.